

생활 속 공간에 무장애 시설 적용 확대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2018. 4. 11.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처
2018. 4. 20.



가야산(소리길) 무장애 탐방로



구룡야영장(치악산) 무장애 야영지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2018), "교통약자 배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확대", 4월 20일자 보도자료.

노후화된 민원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공간·디자인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노후화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실 공간 혁신 컨설팅'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89개 기관이 신청 의사를 밝혀 민원실 공간 혁신에 대한 지자체 기관들의 수요가 상당하다고 설명하였다.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단은 공간·디자인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1인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컨설팅단은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실을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조성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교통약자들도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1만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립공원 여가·휴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탐방객의 약 39%가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35개 구간의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송계야영장~송계계곡 구간, 치악산 세렘폭포~대곡자연학습원 구간을 추가하여 2022년까지 무장애 탐방로 구간을 기존 35개에서 71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치악산 등 국립공원 야영장 12곳에 무장애 야영지**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무장애 야영지 또한 올해 확충될 예정으로, 지리산과 덕유산 야영장 2개에 총 4개의 무장애 야영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2022년까지 160개로 확대 운영한다.

공단은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공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다양한 계층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통약자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평탄하게 조성한 탐방로

** 교통약자들이 쉽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화장실, 내부 보행로에 단차를 없애고, 텐트를 설치하는 바닥면을 넓혀 완만한 기울기로 정비한 곳